한중인쇄협회 교류회의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찾자"

왼쪽면. 중국대표단이 은성정밀인쇄㈜를 방문, 김국 사장(인협 부회장)으로부터 특수인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중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인협을 찾아 교류회의를 갖고 단체장들과 만찬을 가졌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중국인쇄기술협회의 교류협정에 따라 중국인쇄기술협회 대표단이 지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교류회의를 갖는 한편 키페스 2008을 참관하고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인쇄기술협회 심충강 고문, 신문출판서 김의천 처장, 중국인쇄기술협회 첸영신 부국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9월 24일 오후 5시에 입국했다. 대표단은 25일 오전 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의 안내로 파주인쇄산업단지 내에 있는 은성정밀인쇄(주)(대표이사 김국 · 대한인쇄문화협회 부회장)를 방문, 특수인쇄에 대한 현황을 설명듣고 인쇄단지를 돌아 본 후 김국 사장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키페스2008을 참관하고 2시부터 열린 국제인쇄컨퍼런스에 참석해 심충강 고문이 중국 인쇄산업의 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상해인쇄전시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오세익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류회의를 가졌으며, 7시30분부터는 서울 중구 필동의 한국의 집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우동 회장은 "중국인쇄기술협회와 교류협정을 맺은 것이 1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양국 인쇄협회 간의 신뢰는 물론 인쇄인들의 교류와 국제관계 협력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심충강 중국대표단 단장은 "따뜻한 환영과 만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홍 회장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원 회장은 "양국의 인쇄 교류가 증진되도록 양국 협회의 노력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그동안 김의천 선생님을 비롯한 양국 실무책임자들의 노력 또한 중요했다"고 격려했다.

중국 대표단은 26일 인쇄업체를 견학했으며 27일과 28일에는 민속촌 등을 관광한 후 29일 출국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중국인쇄기술협회는 1997년 교류협정을 맺은 이후 양국 인쇄인들 간의 교류, 국제행사에서의 공조, 인쇄전시회 상호 출품 및 방문, 격년으로 대표단 상호방문 등을 실천하고 있다.